

전북 지역 <산악전설>의 유형 분류 및 특징과 지역적 정체성

권도경*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전북 <산악전설>의 유형 분류 및 특징 | 참고문헌 |
| 3. 전북 <산악전설>에 나타난 지역적 정체성 |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북 '산악전설'의 존재양상 및 특징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수성을 살펴봄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전북 미래유산 개발을 위한 문학적 기반을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전북 <산악전설>은 크게 신령형(神靈型)과 풍수형(風水型)의 두 하위유형으로 양분된다. 전북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산악 자체가 비일상적인 움직임·힘·능력 지니고 있는 전자의 신령형은 다시 사람 같은 의인화를 통해 전북 산악의 신령성을 형상화 하는 인격(人格) 패턴과 본래 전북 산악이 지니고 있었던 신령성이 전북 산악과 직결된 제삼의 신격에 의해 전이되어 객체화 되어 있는 비인격(非人格) 패턴으로 분류된다. 인격형이든 비인격형이든 전북 <산악전설>의 신령형은 천지창조의 권능이 전북 산악에 내재해 있다는 애니미즘적 사고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며, 전북 산악의 신성 권능은 천지창조의 여신인 마고할미로 연계될 뿐 아니라 고려를 대체한 조선의 건국과 같은 국가질서 재배치의 역사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북 지역 산악의 애니미즘적 신령을 인문과학적 이치

* 우석대학교 조교수, E-mail: dk11815@naver.com

에 의해 일상적으로 풀이해보자 한 후자의 풍수형은 중앙 행정 관리를 축출하여 지역을 수호하던 전북 산악의 풍수가 중앙 행정 관리에 의해 최종적으로 단혈(斷穴) 되어 더 이상 신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풍수파혈(風水破穴) 패턴만이 존재한다.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비록 전북 산악 풍수가 최종적으로 파혈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체제 속에 전북 지역이 편입되고는 있으나, 전북 산악의 풍수가 전북 지역민을 수호한다는 애니미즘적 의식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 <산악전설>에서 확인되는 전북의 지역적 정체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영남 지역에 대한 상대적 우월이다. 이성계와 지리산신의 대결이 전북과 영남의 대결로 치환되는 전북 <산악전설>의 비인격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이성계와 지리산신을 매개로 한 전북과 영남의 대결 결과 국가적 헤게모니는 물론 우주적 헤게모니가 영남에서 전북으로 이양되어 전북 소속이 되었다는 양상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전북 지역이 국가적 질서의 중심이자 더 나아가 우주적 질서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 주체성이다. 전북 <산악전설>의 유형별 분포도에서 신령형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전북 지역의 주산들에 대한 신격화를 매개로 자기 지역을 주체적인 수호하고자 하는 전북 지역의 자기 중심적 주체성이 확인되는데, 원래 영남 지역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결과 원래 영남에 속해 있었던 국가·천지 재배치의 신성 권능을 획득한 왕을 배출한 국가적·우주적 중심 지역이라는 자부심과도 연계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성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체제에 편입되는 대신 지역 주산의 애니미즘적 신성성을 인문과학적으로 일상화한 풍수지리를 매개로 지역 자치적인 주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이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전남 산악의 풍수신령이 애초에 훼손되지 않거나 일단 훼손되었더라도 회복되어 중앙 행정 관리를 축출함으로써 자기 지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승리하는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 비해 풍수단혈 결과 최종적으로 전북 지역이 중앙 정부에 패배하고 있는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전북, 산악전설, 신령형, 풍수형, 인격형, 비인격형, 풍수파혈, 정체성

1. 머리말

전북(全北)은 한반도의 중서남부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한반도의 서남부에 치우쳐 있는 호남(湖南) 지역의 북부에 해당한다. 금강 이남과 노령산맥 이서(以西)의 동고서저(東高西低)형 지형이 서해안에 이르기까지 형성한 호남평야가 전주·익산·정읍·군산·김제의 전북 대표 시역(市域) 및 완주·부안·고창 등

의 대표 군역(郡域)에 걸쳐 있는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농업이 지역 중심 산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북이 고대국가 백제로 이어지는 마한(馬韓)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고대부터 근대 초기까지 이어진 농업생산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은 농업생산이 한반도 산업의 주력이었던 근대 초입기까지는 호남은 물론 한반도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중공업 중심의 산업 현대화가 진행된 1960년대 이후로는 산업발전사에서 소외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한국산업발전사와 지역 발전사의 궤적을 함께 한 부산시가 경남으로부터 독립하여 1960년대에 직할시포 승격된 이래 경북이 각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구직할시와 울산광역시를 연이어 배태하고, 같은 호남권의 전남은 물론 북쪽 경계를 접하고 있는 충남이 1980년대에 각각 광주직할시와 대전직할시를 탄생시켰으며, 경기도가 1980년대에 인천직할시를 출범시킨 것과 달리 강원·충북·제주와 함께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전북이 도 단위 광역자체단체 중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근대 이후의 산업적 낙후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전북 내부에서 근대 이후의 산업적 낙후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고대의 한반도 중심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고대 이래로 전북의 중심지 지위를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데다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최근 5년간 유일한 지속적 인구 감소지라는 불명예 속에서도 전북 내에서 상대적인 인구 증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전주시를 특례시화 하는 동시에 전주, 완주, 김제를 잇는 상생융합도시와 전주·완주·김제 상생융합도시, 익산, 군산을 잇는 메가시티 추진, 그리고 새만금 국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중공업·에너지 복합산업단지 개발과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새만금 중공업·에너지 복합단지 개발지 및 국제관광단지 개발지가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상생융합도시의 구성인자가 되는 김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결국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미래 발전은 고대 마한 이래로 근대 이전기까지는 전북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던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이 과거 보유하고 있었던 한반도 서남부 광역지역권적 중심성 회복 작업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북의 미래 발전은 전북이 근대 이전기까지 지니고 있었던 과거 유산 개발에 조응하는 것으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갈 미래유산 개발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북의 미래유산 개발은 역사·문화·산업 분야의 각도에서 접근이 가

능하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분야는 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전북전설> 중에서도 <산악전설>이다. 일단, 전설은 특정 지역의 역사·문화는 물론 자연·인물과 관련된 특수성을 두루 반영하고 있는 문학 양식인데, 전설의 두 가지 하위 유형 중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상대적으로 더욱 밀착되어 있는 쪽은 <지역전설> 쪽이다. <광포전설>은 전국 각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 지역의 특수성 보다는 지역 간의 공통적인 보편성과 일반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즉, 특정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인물 등과 관련된 특정 지역의 내력 및 탁월성과 해당 지역민의 생활 및 의식·정서가 지니는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해당 지역만의 <지역전설>이라는 것이 된다. 이 점에서 특히 <지역전설>은 그 자체만으로 한 지역이 개발해 나가야 할 미래유산의 자원 및 기원이 되는 동시에 새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미래유산의 안내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전설>은 일반적으로 다시 <인문전설>, <자연전설>, <인물전설>, <지명유래전설>, <풍속전설> 등으로 분류되는데, <자연전설>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산악전설>은 산악지물의 형상·유래 등을 해당 산악을 자연 증거물로 하여 설명한 <자연전설>의 하위 유형이다. 이야기 대상이 되는 산악지물이 특정 지역 자연지물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변화가 적은 기원성 및 항상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산악전설>은 여타의 <지역전설> 중에서도 시원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산악전설>은 특정 지역 구성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래된 기원성과 변치 않는 항구성을 기반으로, 산악의 유래·지형·지세 등과 해당 지역민의 교섭사를 통해 지역적 특수성을 허구적으로 형상화 하여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산악전설>은 지역 미래유산 개발을 위한 문학적 기반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장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북 <산악전설>을 독자적인 <지역전설>의 한 독자적인 하위 양식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는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 <전북전설>에 대한 연구 또한 그 자체가 극히 적은 데다, 그나마 기왕 제출되어있는 다섯 편의 연구 성과는 전북의 <광포전설>과 <인물전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부다. 전자에는 김월덕(2015)²⁾과 권도경(2012)³⁾의 연구가 속한다. 후자에는 권도경(2021)⁴⁾·(2014)⁵⁾, 김난경(2017)⁶⁾, 한정훈(2013)⁷⁾의 연구가 속한다. <지역전

2) 김월덕, <전북지역 구비설화의 문화지형도>, 『실천민속학연구』26, 실천민속학회, 2015.

3) 권도경, <호남권 광포전설의 전승양상과 로컬리티>, 『인문학연구』44,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4) 권도경, 『이거두리 설화』, 동인기획, 2021.

5) 권도경, <고구려 녹녀호국지모신화의 호남분파와 무속신화 <칠성풀이>와의 관계>, 『동

설> 하위 양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인물전설> 양식에 집중되어 있는 결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타 지역별 <산악전설>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도 진행된 바 없다. 다만, 권도경(2011)⁸⁾·(2008)⁹⁾·(2008)¹⁰⁾·(2006)¹¹⁾의 일련의 북한·서울·독도·부산 <지역전설> 선행연구에서 북한·서울·독도·부산 <지역전설>의 하위 양식 중의 하나로 <산악전설>의 존재양상 및 특징이 지역적 정체성의 일환에서 다루어졌으나, <산악전설>만을 독자적인 하나의 유형으로 대상화 하여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동시에 차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적 정체성을 도출하는 연구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 ‘산악전설’의 유형 분류 및 특징 분석을 통해 지역적 정체성을 살펴봄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전북 미래유산 개발을 위한 문학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전북 <산악전설>의 유형 분류 및 특징

1) 신령형(神靈型) <산악전설>

<산악전설>의 신령형은 특정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산악 자체가 비일상적인 움직임·힘·능력 지니고 있는 유형이다. 인간의 몸집을 넘어서는 거대 자연지물로서의 산악에 대한 경외감과 일상적인 인간 삶의 지속·풍요·안녕을 가능케 하는 생활권역의 배후 주산(主山)에 대한 숭앙감이 서사적으로 투영되어 산악의 신이성이 부각되어 있는 유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출몰 이전부터 특정 지역에 존재하면서 인간 본연의 비속성과 일상성을 넘어서 있는 자

『아시아고대학』3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 6) 김난경, <설화에 나타난 실존 인물의 의미화와 전승주체의 의식·김제 정평구 설화를 대상으로>, 『돈암어문학』31, 돈암어문학회, 2017.
- 7) 한정훈, <설화 속 정평구의 형상과 전승의식의 다각화>, 『한국구비문학연구』36, 한국구비문학회, 2013.
- 8) 권도경, <북한전설의 존재양상과 로컬리티-주체사상 변개 이전 '지역전설'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4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07-137쪽, 2011.
- 9) 권도경, <서울지역 '지역전설'의 존재양상과 지역성>(『향토서울』 7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85-218쪽, 2008.
- 10) 권도경, <부산 지역 당제유래전설에 나타난 '지역전설'의 유형적 특징과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부산연구』5,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일반학술지, 2008.
- 11) 권도경, <대구·경북의 지역전설에 관한 연구>, 『영남학』1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147-188쪽, 2006.

연물을 신성시하는 애니미즘적 사고를 서사적으로 풀어낸 <산악전설> 유형이 된다.

전북 <산악전설>의 신령형은 크게 두 가지 하위 패턴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람 같은 의인화를 통해 전북 산악의 신령성을 형상화 하는 인격(人格) 패턴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전북 산악이 지니고 있었던 신령성이 전북 산악과 직결된 제삼의 신격에 의해 전이되어 객체화 되어 있는 비인격(非人格) 패턴이다. 전자의 인격형에는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에 전승되는 <걸어오다가 멈춘 마이산(馬耳山)>¹²⁾·<자라다가 멈춘 마이산>¹³⁾·<크는 마이산과 방해한 여자>¹⁴⁾ 등이 속한다. 후자의 비인격 패턴에는 <지리산이 귀양 온 것과 비암사골의 유래>¹⁵⁾·<지리산 산신령과 이성계>¹⁶⁾·<지리산이 귀양 온 이유>¹⁷⁾·<산신의 거절 전설>¹⁸⁾·<외팔이 여산신령 전설>¹⁹⁾·<우투리에게 한 약속 전설>²⁰⁾·<웃도리 전설>²¹⁾·<우투리 전설>²²⁾·<둥구리 전설>²³⁾ 등이 해당한다.

이 중에서 전자의 인격형 전북 <산악전설>은 다시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북 산악이 마치 사람처럼 도보로 이동하는 도보 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전북 산악이 인간처럼 자라는 성장 타입이다. 전북 <산악전설>의 도보 타입에는 <걸어오다가 멈춘 마이산(馬耳山)>²⁴⁾이 해당하고, 전북 <산악전설>의 성장 타입에는 <자라다가 멈춘 마이산>²⁵⁾·

-
- 12) <걸어오다가 멈춘 마이산(馬耳山)>,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설화2, 81-83쪽.
 - 13) <자라다가 멈춘 마이산>,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설화3, 83-84쪽.
 - 14) <크는 마이산과 방해한 여자>,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시 완산동 설화8, 47-48쪽.
 - 15) <지리산이 귀양 온 것과 비암사골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 남원군 산내면 설화4, 91쪽.
 - 16) <지리산 산신령과 이성계>,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 대강면설화14, 144-145쪽.
 - 17) <지리산이 귀양 온 이유>,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 1979, 183쪽.
 - 18) <산신의 거절 전설>, 전북 남원군 산내면 부운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 19) <외팔이 여산신령 전설>, 전북 남원군 운봉면, 장교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 20) <우투리에게 한 약속 전설>,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 21) <웃도리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5-4,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980, 347쪽.
 - 22) <우투리 전설>, 전북 남원군 산내면 부운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293쪽.
 - 23) <둥구리 전설>, 전북 남원군 운봉면 서천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292쪽.
 - 24) <자라다가 멈춘 마이산>,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설화3, 83-84쪽.

<크는 마이산과 방해한 여자>가 속한다.

후자의 비인격형 전북 <산악전설> 역시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전북 산악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신령한 인격이 제삼의 신격 캐릭터로 완전히 분화되지 않고 아직 흔적이 전북 산악의 신체 속에 남아있는 흔적 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전북 산악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신령한 인격이 제삼의 신격 캐릭터로 완전히 분화되어 전북 산악은 무생물의 자연지물로 전이된 인격 분화 타입이다. 전북 <산악전설>의 인격 분화 타입에는 <지리산이 귀양 온 것과 비암사골의 유래>26)·<지리산 산신령과 이성계>27)·<지리산이 귀양 온 이유>28)·<산신의 거절 전설>29)·<외팔이 여산신령 전설>30)·<우투리에게 한 약속 전설>31)·<웃도리 전설>32)이 속하고, 전북 <산악전설>의 인격 흔적 타입에는 <외팔이 여산신령 전설>33)·<동구리 전설>34)이 속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전북 <산악전설>의 신령형 텍스트 중 인격 패턴에 속하는 텍스트들을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량 관계상 전북 <산악전설>의 신령형 텍스트 중 인격 패턴에 속하는 텍스트들의 전체 분량을 예로 드는 것은 어려우므로 해당 텍스트가 구현하고 있는 차별적인 의미망을 고려하여 개요만 제시한다.

[자료1-1] 마이산이 걸어오는 것을 본 물길는 여자가 “저 산이 막 걸어오네.” 라고 말하자 마이산이 진안에 멈춰, 암마이산과 숫마이

- 25) <자라다가 멈춘 마이산>,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설화3, 83-84쪽.
- 26) <지리산이 귀양 온 것과 비암사골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 남원군 산내면 설화4, 91쪽
- 27) <지리산 산신령과 이성계>,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 대강면설화14, 144-145쪽.
- 28) <지리산이 귀양 온 이유>,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 1979, 183쪽.
- 29) <산신의 거절 전설>, 전북 남원군 산내면 부운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 30) <외팔이 여산신령 전설>, 전북 남원군 운봉면, 장교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 31) <우투리에게 한 약속 전설>,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 32) <웃도리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5-4,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980, 347쪽.
- 33) <외팔이 여산신령 전설>, 전북 남원군 운봉면, 장교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 34) <동구리 전설>, 전북 남원군 운봉면 서천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292쪽.

산이 되었다.³⁵⁾

[자료1-2] ① 암속금산은 낮에 크자고 하고 숫속금산은 밤에 크자고 했는데, 암속금산이 이겼다. 물길는 여자가 이를 보고 보고 산이 크다고 말하자 암속금산과 숫속금산이 모두 멈추었다. 숫속금산이 자기 말대로 밤에 컸으면 안들켰을 거라 하며 암속금산의 두 자식을 빼앗았다. 제대로 커 올라갔으면 거기가 서울이 되었을 것이라 한다.³⁶⁾

② 마이산이 하루아침에 자랐다. 여자가 마이산이 크다는 소리를 하니 마이산이 자라기를 멈추었다.³⁷⁾

[자료1-3] ① 신라 성을 쌓을 때 안계동 할매라고도 하는 안가닥 할매가 회초리로 바위를 후려서 몰고 갔다. 신라 성이 다 완성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돌을 멈춰 세워버렸다. 현재까지 돌이 남아 있으며, 안계동은 강동면에 있다.³⁸⁾

② 진시황이 천하의 돌을 전부 모아다 만리장성을 쌓고 있었는데, 너덜경의 마구할미(麻姑할미)가 풍월가(風月歌)도 잘 읽고 귀신도 잘 부릴 수 있고 돌을 고기로 만들어서 몰고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너덜경의 마구할미가 진시황의 만리장성 축조에 보태고자 울산에서 돌을 모은 뒤 전부 고기로 만들어서 중국까지 수 천리를 몰고 갔다. 만어사썰에 가서 만리장성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기를 멈추게 하였다. 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가던 고기 상태가 그대로 돌로 바뀐 결과 만어사 돌들의 머리가 전부 북쪽을 향하고 있다.³⁹⁾

35) <걸어오다가 멈춘 마이산(馬耳山)>,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설화2, 81-83쪽.

36) <자라다가 멈춘 마이산>,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설화3, 83-84쪽.

37) <크는 마이산과 방해한 여자>, 『한국구비문학대계』5-2, 전북 전주시 완산동 설화8, 47-48쪽.

38) <안가닥 할무이>, [현곡면 설화 65], 채록지:경북 월성군 현곡면 가정 1리 가정, 채록자: 조동일·임재해, 구연자:최혜윤, 『한국구비문학대계』7-1, 145~146쪽.

39) <만어산 너덜경의 유래>, [삼랑진읍 설화 3], 채록지:경북 밀양군 삼랑진읍 청학리

우선, [자료1-1]~[자료1-3]의 인격 패턴에서 전북의 산악은 마치 인간과도 같은 인격을 갖추고 있는 대상처럼 형상화 되고 있다. 전북 산악을 인간 같은 인격으로 형상화 하는 이면에는 산악이라는 거대 자연지물을 인격을 갖춘 신격으로 숭앙하는 애니미즘적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무생물인 산악이 인간처럼 이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비일상적인 신이한 현상인 바, 산악을 신령(神靈)이 내재한 존재로 신성시 할 때만이 인격화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료1-1]의 도보형과 [자료1-2]의 성장형은 전북 <산악전설>이 산악의 인격화를 각각 산악의 자기 주체적인 이동과 성장으로 세분화 해놓은 예에 해당한다.

특히, [자료1-1]과 [자료1-2]-①에서는 전북 산악의 이동·성장이라는 신이한 인격적 현상이 물길는 “여자”, 즉 급부(汲婦)의 인지와 발설에 의해 멈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성에 한계가 확인된다. 물길는 “여자”는 세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 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무생물의 비인간이면서 인간처럼 이동·성장하던 산악은 물길는 인간 “여자”에 의해 정체성이 들켜서 공표되는 순간 원래의 신이성을 상실하고 부동의 무생물로 환원될 정도로 왜소화 되고 말는 것으로 형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자료1-1]·[자료1-2]-①에서 전북 산악의 인격적인 신이한 이동·성장을 인지·공표에 의해 저지시키는 물길는 “여자”의 이중적 속성이다. 인격적인 이동·성장을 하는 전북 산악이 신령스러운 존재라면 그것을 멈추게 하는 물길는 “여자” 역시 일상의 세속적인 인간 여성만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물길는 “여자”가 단순히 일상의 세속적인 인간 여성이기만 하다면 신령스러운 전북 산악의 인격적인 이동·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1-1]·[자료1-2]-①에서 나타나는 물길는 “여자”는 표면적으로는 일상의 세속적인 인간 여성으로 나타나지만, 이면적으로는 전북 산악의 신령성을 제어할 수 있는 신이성을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자료1-1]·[자료1-2]-①의 물길는 “여자”가 지닌 신이성의 기원이 무엇이며, 전북 산악의 신령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자료1-2]-②에서는 전북 산악의 신이한 이동·성장을 인지·공표함으로써 일상적인 무생물로 환원시키는 “여자”가 [자료1-1]·[자료1-2]-①와 달리 인간 여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성별만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자료1-2]-②의 “여자”는 전북 산악의 신이한 이동·성장을 인지·공표를 통해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의 비일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료2]의

“여자”는 신이한 전북 산악 보다 더 신이한 존재라는 것으로 산악의 주체적인 인격적 움직임의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1-2]-②에서 “여자”가 산악과 같은 거대자연지물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행위는 곧 천지만물의 재배치에 대응된다. 이 점에서 [자료1-2]-②의 “여자”는 천지만물을 창조·관리하는 대모(大母) 여신인 마고에 비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전북을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전국에는 거대한 바위의 이동을 주관하는 마고(麻姑) 신격에 관한 전설이 산재한다. [자료1-3]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자료1-3]-①은 채록 당시 경북 월성군 현곡면이었으나 현재는 경북 경주시 현곡면으로 변경된 영남 지역에서 채록된 <안가닥 할미>이고, [자료1-3]-②는 채록 당시는 경북 밀양군 삼랑진읍 청학리였으나 현재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로 변경된 영남 지역에서 채록된 <만어산 너덜정의 유래>이다.

[자료1-3]-①에서는 신라 성 축조에 보태려고 돌을 몰고 가던 안가닥 할미가 도중에 신라 성 축조가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을 멈춰 세운 것이 현재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 바, 안가닥 할미는 거대한 돌들을 한꺼번에 몰고 갈 정도의 비일상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형상화 되어 있다. 안가닥 할미가 거대한 자연지물인 바위를 축성을 위해 이동시키다가 멈추게 한 행위는 여성 노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세속적인 차원을 넘어선 신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떨어진 곳에 옮겨 위치시키는 자연지물의 재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볼 때 천지창조여신인 마고할미의 직능에 대응된다. 같은 차원에서 안가닥 할미를 지칭하는 “할미”라는 말 자체도 현재적 인간을 가리키는 할머니가 아니라 경북 지역에 지역화 된 대모여신의 순우리말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안가닥 할머니는 마고여신의 경북 지역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자료1-2]-②에서 실제로 확인된다. [자료1-2]-②에서는 거대 바위들을 한꺼번에 움직이거나 정지시켜서 재배치하는 신이한 능력의 여성 주체가 명확히 한반도 전역에 산재하는 천지창조의 기원적 대모신인 마고할미로 명시되어 있다. [자료1-1]-[자료1-2]-①이나 [자료1-3]-①과는 달리, [자료1-2]-②에서 거대 바위들의 재배치하는 여성 주체의 신성 능력에 대한 형상화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산악 이동 중지자의 여성 주체가 천지창조의 기원적 대모신인 마고할미로 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1-3]-②에서는 마고할미가 풍월가(風月歌)를 잘 읽고 귀신을 잘 부리며 돌을 몰고기로 만들어 몰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

는데, 이들 세 가지 능력은 모두 바위 재배치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풍월가는 신라 향가(鄕歌)의 이칭으로 천지귀신(天地鬼神)을 감동시켰던 노래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의 풍월가를 잘 불렀다는 마고할미의 능력은 귀신을 부리고 돌을 물고기로 변화시켜서 이동시켰다는 마고할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능력을 포괄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귀신과 돌 풍월가의 감화 대상인 천지귀신 중 각각 귀신(鬼神)과 천지(天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마고여신과 마고여신의 경북 지역 버전으로서의 안가닥 할미가 지니는 여성 성별과 암석 멈춤의 신성성이다. [자료1-3]-①·②의 안가닥 할미에게서 확인되는 여성 성별과 거대 자연지물 재배치 능력은 [자료1-2]-②에서 살펴보았던 “여자”의 성별과 거대 자연지물을 재배치하는 능력에 그대로 대응된다. 거대 자연지물의 미시적인 구현체만 각각 바위와 산악으로 구분될 뿐이다. 따라서 [자료1-2]-②의 “여자”는 [자료1-3]-①·②의 마고여신·안가닥 할미와 같은 대모신과 여성 성별 및 천지창조의 직능을 공유하고 있으면도 본래 명칭에서 신격의 표징을 상실한 채 여성의 성별 표징만 지니고 있는 존재로 볼 수 있게 된다.

[자료1-2]-②에서 살펴보았던 “여자”의 본래 정체가 [자료1-3]-①의 안가닥 할미와 같은 천지창조의 대모신이라는 사실이 규명되게 되면, [자료1-1] 및 [자료1-2]-①의 물 길는 “여자”의 기원도 비로소 명확히 규정될 수 있게 된다. 바로 [자료1-3]-①·②의 마고여신·안가닥 할미와 같은 천지창조의 대모 여신이다. [자료1-1] 및 [자료1-2]-①의 물 길는 “여자”가 행한 산 멈춤은 [자료1-2]-②의 “여자”가 행한 그것과 동일한데, [자료1-2]-②의 “여자”가 행한 산 멈춤은 거대 자연지물의 재배치라는 측면에서 [자료1-3]-①·②의 마고여신·안가닥 할미가 행한 바위 멈춤과 동일한 천지창조 대모 여신의 신직 범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자료1-1] 및 [자료1-2]-①·②에서 천지창조 대모 여신 기원의 “여자”와 인격적인 이동·성장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전북 산악의 관계다. [자료1-1] 및 [자료1-2]-①·②에서 전북 산악의 인격적인 이동·성장을 저지시킨 “여자”의 산 멈춤이 천지만물을 재배치하는 천지조화의 신성 직능에 해당한다면, 전북 산악이 직접 자신의 거대 몸체를 이동·성장 시키는 행위는 거대 자연지물로서 자신의 본래 위치와 상태를 리모델링 하는 주체적인 천지조화 행위에 해당한다. 즉, 전북 산악이 애니미즘적인 차원의 신격으로서 거대 자연지물로서의 자기 위치와 상태를 스스로 재편하는 천지조화의 신직 수행이

바로 자기 주체적인 인격적 신체 이동·성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료1-1] 및 [자료1-2]-①·②에서 주체적으로 인격적인 이동·성장하는 전북 산악을 천지창조의 애니미즘적 신격으로 보게 되면, 천지창조의 애니미즘적 신격인 전북 산악과 천지창조 대모 여신 기원의 “여자” 사이에는 천지창조의 신직을 매개로 한 분화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게 된다. 즉, [자료1-1] 및 [자료1-2]-①·②의 천지창조 대모 여신 기원의 “여자”는 원래 자기 주체적인 이동·성장에 의해 천지창조를 직접 행했던 전북 산악의 직능이 분화 되어 나간 인격적인 페르소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전북 산악이 천지창조의 애니미즘적 신격으로서 본래 지니고 있었던 천지창조 신직의 인격적 주체성과 자연지물적 대상성이 [자료1-1] 및 [자료1-2]-①·②의 서사 과정에서 분리된 결과 천지창조 신직의 인격성이 따로 분리되어 캐릭터화 된 것이 바로 천지창조 대모 여신 기원의 “여자”가 된다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전북 <산악전설>의 신령형 텍스트 중 비인격 패턴에 속하는 텍스트들을 먼저 제시한다. 역시 분량 관계상 각 텍스트별로 개요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2-1] ① 이성계가 왕이 되려는데 다른 산신은 다 허락을 해주어도 지리산신은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이성계가 원래 경상도의 지리산을 전라도로 귀양보냈다.⁴⁰⁾

② 이성계가 전국으로 다니며 산제(山祭)를 지냈는데 지리산 여신령만 이성계가 이신이군(以臣伐君) 했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남해 금산이 주동이 되어 이성계의 등극을 찬성하자 이성계가 비단 금(錦) 자를 넣어서 금산(錦山)으로 이름을 고쳐 주었다. 반면 지리산은 원래의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귀양을 보냈다.⁴¹⁾

③ 옛날 진시황이 등극을 하려고 경상도에 지리산 산제(山祭)를 드리러 왔다. 진시황은 소금장수로부터 지리산 산제가 부정을 타서 산신령이 흠향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산제를 올렸다.

40) <지리산이 귀양 온 것과 비암사골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 남원군 산내면 설화4, 91쪽 ; <지리산 산신령과 이성계>,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 대강면 설화14, 144-145쪽.

41) <지리산이 귀양 온 이유>, 『한국구비문학대계』5-1, 전북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 1979, 183쪽.

그래도 지리산 산신령이 허락을 하지 않자, 진시황이 등극한 뒤 지리산 여산신을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⁴²⁾

④ 지리산은 원래 경상도 지리산이었다. 다른 지역 산신들은 모두 태조 이성계의 편을 들었으나 지리산 산신만 우투리 편을 들었다. 태조 이성계가 우투리를 잡아 죽이고 지리산을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 사실 이신벌군(以臣伐君) 한 것은 이성계였다.⁴³⁾

⑤ 이성계가 등극을 하려고 산천을 다니다가 지리산에 도착했다. 이성계가 밤에 빈 집에 묵으면서 들으니 지리산 산신이 윗도리를 인정하고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이성계가 윗도리를 찾아내서 죽이고 등극했다. 이로 인해 지리산은 전라도 개 땅이 되었다.⁴⁴⁾

⑥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운봉에 가서 산제를 올렸다. 소금장 수로부터 산제가 부정 타서 산신령이 흠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산제를 올렸다. 다른 산신령들은 이성계의 등극을 허락했으나 지리산 여산신령만 우투리의 등극을 주장했다. 이에 이성계가 바다 속에 숨어 있는 우투리와 우투리의 모친을 죽이고, 자신의 등극을 반대한 지리산 여산신령을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⁴⁵⁾

[자료2-2] ① 이태조가 왕이 되려고 지리산 산신령에게 허락해 달라고 했으나 지리산 산신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지리산에서 사람이 하나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태조가 칼로 산신의 팔뚝을 자르고 지리산을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⁴⁶⁾

42) <산신의 거절 전설>, 전북 남원군 산내면 부운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43) <우투리에게 한 약속 전설>,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44) <윗도리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5-4,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980, 347쪽.

45) <우투리 전설>, 전북 남원군 산내면 부운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293쪽.

46) <외팔이 여산신령 전설>, 전북 남원군 운봉면, 장교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② 이태조가 등극하고 싶었으나 지리산을 무서워했다. 지리산이 태조와 맞서려고 천하장사 동구리를 내자 이성계가 병사들을 시켜 동구리를 죽였다. 이성계가 등극한 후 지리산을 제외한 모든 산신의 산신령에게 항복을 받았다. 지리산 산신령이 동구리의 죽음에 화가 나서 이성계에게 가지 않자 애태조가 제사를 올렸다. 지리산 산신령이 매를 타고 서울로 가서 이태조에게 인사는 하지 않고 대궐 처마 방울만 흔들고 돌아가자, 이성계가 화가 나서 지리산을 귀양 보냈다.⁴⁷⁾

[자료2-1] 비인격 패턴의 인격 흔적 타입에서 전북 산악은 자기 스스로 자기 신체의 위치와 상태를 바꿈으로써 천지만물을 재배치하는 신이성의 주체가 아니라 제삼자에 의해 재배치 당하는 객체로만 나타난다. 대신 국가 창업을 두고 격돌한 이성계와 지리산신의 헤게모니 다툼의 결과 승리한 이성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북 산악을 재배치하는 천지조화의 신령한 주체는 조선 건국시조인 이성계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선을 건국하는 역사적인 업적이 거대 산악지물을 옹기는 신화적 창조를 압도하는 동시에 국가 건국의 역사적 창조성이 천지창조를 포함하는 신화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내재해 있다. 원래 신화적 천지창조의 일부가 되어야 할 역사적 국가창조가 신화적 천지창조 보다 상위의 신성성을 확보하고 있는 층위로 위계가 전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선 건국시조 이성계는 국가 창업 능력뿐 아니라 전북 산악의 위치를 재배치할 수 있는 지창조의 신화적 능력까지 겸직하고 있다는 인식이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 건국시조 이성계의 천지창조의 신화적 능력 확보가 지리산신과의 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료2-1]을 보면 최초 이성계와 지리산신과의 관계는 일관되게 지리산신 우위로 나타난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을 위해 지리산신에게 산제를 올려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위 위계에 있는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려를 조선으로 대체하는 국가 재배치의 최고 주관자는 원래 지리산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실제로 [자료2-1]-①·②·③·④를 보면 지리산신은 조선 건국이 아닌 고려 지속의 최종 결정권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2-1]-⑤·⑥을 보면 지리산신은 고려를 대체할 새로운 건국주인 우투리를 넘으로써 국가 재배치의 최종 결정권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성계의 조

47) <동구리 전설>, 전북 남원군 운봉면 서천리,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崔來沃, 일조각, 1981, 292쪽.

선 건국은 지리산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이성계가 원래 지리산신이 지니고 있었던 국가 재배치의 신성 직능을 대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성계가 지리산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결과 지리산신으로부터 획득한 것이 원래 지리산신이 지니고 있었던 국가 재배치의 신성 권능만이 아니라 라는 사실에 있다. 지리산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고려에서 조선으로 국가를 재배치한 이성계가 원래 경상도에 위치해 있었던 지리산을 전라도로 이동시키는 천지 재배치 권한까지 획득한 것으로 보아 애초에 지리산신이 지니고 있었던 신직은 천지창조의 대모신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자료 2-1]-③·⑥에서는 지리산신의 성별이 여성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결국 이성계와 지리산신의 대결은 천지창조의 신성 권능을 사이에 둔 신직 대결로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료2-2]-①의 인격 흔적 타입을 보면 보면 고려를 대체할 새로운 건국주의 탄생지가 지리산으로 나타난다. 거대 산악지물이 건국주라는 인간 영웅을 탄생시킨다는 관념의 소산으로, 지리산이 원래부터 [자료2-1]-①·②·③·④·⑤·⑥처럼 지리산신이 지닌 국가 재배치의 신화적 권능에 대한 객체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국가 재배치를 주관하는 신이한 인격적 권능을 지닌 신령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지리산신이 아니라 지리산 자체가 국가 재배치의 신성한 권능을 지닌 인격적인 신격이었다는 것이다. 지리산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지리산신에게서 이성계가 탈취한 신직의 기원이 천지창조의 대모신적인 것이었으니 결국 지리산의 인격적인 신성성은 천지창조의 대모신적인 권능으로 소급될 수 있다.

[자료2-2]-②의 전반부에서 이성계가 애초 조선 건국을 위해 대결했던 상대가 지리산신이 아닌 지리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천지창조의 대모신적 권능의 소종래가 원래 인격적인 신격으로 존재했던 지리산이었음이 확인된다. 지리산신은 지리산이 본래 지녔던 인격적인 천지창조의 대모신적 권능이 분화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바, 비록 [자료2-2]-②의 후반부에서 이성계의 천지창조 신직을 사이에 둔 대결 상대가 지리산에서 지리산신으로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지리산이 본래 천지창조의 신성 권능을 지닌 인격적인 신격이었던 흔적이 [자료2-2]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 풍수형(風水型)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특정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산악에 근원적으로 서려

있는 신령스러운 영(靈)을 산세(山勢)·산형(山形)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유형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산악을 비롯한 모든 대지의 각 부분에서 생기가 흩어지고 머무는 현상을 지형·지세와 관련한 음양오행의 이치로 이론화 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풍수(風水)⁴⁸⁾라고 할 때,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단순히 특정 지역 산악의 산세·산형을 설명하고자 하는 유형이 아니라 <산악전설> 신령형을 기원적인 전제로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산악전설> 풍수형이 신령형에 대하여 지니는 차별성은 특정 지역 산악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신성한 영(靈)을 애니미즘적으로 숭앙하는 의도가 아니라 인문지리적으로 일상화 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산악전설> 신령형은 특정 지역 산악에 대한 신앙적 숭배 의식에 의해서 성립된 유형이라면, <산악전설> 풍수형은 특정 지역 산악에 대한 과학적 설명 의식에 의해서 성립된 유형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텍스트는 딱 한편 확인된다. 바로 <호락산 전설>⁴⁹⁾이다.

[자료3] 서울에서 남원에 부임하면 호락산(虎嶺山)의 기운을 못 이겨 가버렸다. 호락산의 산세가 세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남원부사가 호락산의 이름을 견두산(犬頭山)으로 바꿔버렸다. 호랑이를 개로 바꾸어 산의 기운을 약화시킨 것이었다. 이후로는 남원 사람들이 부사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한다.⁵⁰⁾

[자료3]의 <호락산 전설>은 현재의 전북 남원시 송동면에 전승되고 있는 텍스트로, 남원시의 호락산(虎嶺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호락산 전설>은 외지인에 의해 전북 산악의 풍수가 단혈(斷穴) 되어 더 이상 신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풍수파혈(風水破穴) 패턴에 해당된다. 호랑이를 닮은 호락산의 산세가 너무 세서 남원으로 유입된 외지인이 남원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외지인의 남원 정착을 돕기 위해 호락산의 이름을 견두산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일종의 명명법에 의해 원래 호락산의 산세가 지녔던 호랑이 같은 강한 산세를 간접적으로 파멸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의 머리를 닮은

48)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 이항녕, <한국의 풍토와 사상> 『한국사상총서』 IV, 한국사상연구회, 1973.

49) <호락산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5-1, 송동면설화22, 292-293쪽

50) <호락산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5-1, 송동면설화22, 292-293쪽

산으로 명명하게 되면 남원인들의 인지 체계 내에서 호랑이의 기세를 닮은 호락산의 산세가 파혈되어 개의 머리 형상으로 바뀌는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호락산의 강한 기세로 인해 불가능했던 남원 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락산의 산세를 인지적인 측면에서 파혈한 주체는 남원을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 내에서 지배하기 위해 파견된 남원부사다. 남원부사는 호락산의 산세를 인지적으로 파혈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적인 측면에서 남원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의 매개자가 된다.

중앙정부가 남원으로 파견한 남원부사와 호락산 사이에는 대결구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중앙정부 관점에서는 부임하는 남원부사마다 쫓아내는 호락산은 중앙집권적인 남원 지배를 가로막는 반체제적인 것이 된다. 반면, 호락산의 남원부사 축출은 남원부사를 매개로 한 중앙정부의 남원 지배를 저지하는 지역 자치 수호적인 것이 된다. 이 점에서 남원부사가 호락산과의 대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써 호락산의 지역 자치 수호가 실패로 끝나고 있는 <호락산 전설>은 전북 지역이 풍수파혈 모티프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체계 속에 편입되는 과정을 형상화 한 전북 <산악전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자료3-1]에서 남원부사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를 남원에 구축하기 위해 대결한 상대가 왜 남원 지역민이 아니라 호락산인가 하는 점이다. 남원을 중앙집권적으로 행정지배 하기 위한 남원부사의 투쟁이 남원 지역민과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호락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호락산이 남원 지역민의 지역 자치권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애니미즘적 인식체계가 남원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앙행정부의 파견 관리를 축출함으로써 남원 지역민의 지역 자치권을 수호하는 호락산 산세의 기원이 호락산의 인격적 신령성이 된다는 것이다. 애니미즘적 산악 신앙에 근거한 호락산의 인격적 신령성이 풍수지리의 이론에 의해서 인문과학적으로 치환된 설명된 것이 바로 호락산의 산세가 되기 때문이다.

3. 전북 <산악전설>에 나타난 전북의 지역적 정체성

전북 <산악전설>에서 확인되는 전북의 지역적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로 도출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영남 지역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이다. 전북 <산악전설>의 비인격형인 [자료2-1]·[자료2-2]에서 확인된다. 이들 비인격형의 전북 <산악전설>에서 이성계는 국가 재배치의 신성 권능을 지니고 있었던 지리산

신과의 승리한 결과 조선을 창업하는 데 성공하는데, 하필 이 지리산신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리산의 본래 위치가 경상도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성계는 전북 출신의 대표적인 전북 지역 인물이다. 이 점에서 이성계와 지리산신의 대결은 전북과 영남의 대결로 치환될 수 있다. 이성계와 지리산신을 매개로 한 전북과 영남의 대결 결과 승리한 전북은 원래 영남이 쥐고 있었던 국가 재배치의 신성 권능은 물론 천지창조의 신성 권능까지 획득하게 되는 바, 이성계의 승리는 곧 국가적 헤게모니는 물론 우주적 헤게모니가 영남에서 전북으로 이양되어 전북 소속이 되었다는 전북 지역인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북 지역이 국가적 질서의 중심이자 더 나아가 우주적 질서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 주체성이다. 일단, 전북의 지역 자치적 주체성은 전북 <산악전설>의 유형별 분포도에서 신령형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전북 <산악전설>의 신령형은 풍수형 보다 텍스트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거니와 하위유형도 다층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산악전설>의 신령형이 특정 지역민 삶의 안녕과 풍유를 수호하는 주산에 대한 애니미즘적인 인격적 숭앙감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할 때, 전북 <산악전설>의 신령형은 전북 지역의 주산들에 대한 신격화를 매개로 자기 지역에 대한 주체적인 수호의식을 표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원래 영남 지역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결과 원래 영남에 속해 있었던 국가·천지 재배치의 신성 권능을 획득한 왕을 배출한 국가적·우주적 중심 지역이라는 자부심과도 연계될 수 있다. 전북 출신의 지역인물인 이성계가 원래 국가·천지 재배치의 신령을 지니고 있었던 지리산의 소속지를 영남에서 전북으로 바꿔버린 순간 전북은 국가적·우주적 헤게모니의 타자에서 중심지로 지역 간 위계 자체가 변동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성이다. [자료2-1]·[자료2-2]의 신령형 비인격 패턴에서 확인되었던 바, 영남에 대한 전북의 상대적인 자기 중심성은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서울에 대한 저항성으로 발현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체제에 편입되는 대신 지역 주산의 애니미즘적 신성성을 인문과학적으로 일상화 한 풍수지리를 매개로 지역 자치적인 주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이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확인되는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성은 전남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전남 <산악전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4] ① 조선조 말엽 해남에 부임해 온 현감들이 이 곳 토족들 때문에 치정 하기가 어려웠다. 연안 이씨와 여흥 민씨 두 벌족들이 세도를 너무 부렸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일을 하면 당장 파직을 당했다. 그래서 해남 현감들이 아침마다 고개 넘어 20리 밖에 있는 여흥 민씨들을 찾아가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돌아와 정사를 보곤 했다. 이로 인해 이 고개를 아침고개, 즉 조령(朝嶺)이라 부르게 되었다.⁵¹⁾

② 조선조 말엽에 김서구(金敍九)란 사람이 해남 현감으로 발령 받았다. 김서구가 뒷산에 올라가 지형을 살펴본 뒤 해남인들이 드센 것은 이 지형 때문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김서구가 이속들을 시켜 마늘처럼 생긴 북쪽 호산(葫山)을 밤마다 석 자 세 치씩 깎아 내렸다. 코가 센 소의 기를 죽이기 위해 소의 정강이에 해당하는 우슬재도 깎아내렸다. 하지만 김서구는 1년 4개월만에 해남에서 쫓겨났다.⁵²⁾

③ ㉔ 해남읍의 지형을 사람들은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라고 말한다. 삼산면과 현산면 경계에 병풍산이(313m) 있다. 이 산과 해남읍 중간이며 읍과 삼산면 면계를 이룬 곳에 금산(216m)이 있으며 해남읍 뒷산 금강산(481m)에 미암(眉岩)이 있다. 이같은 지명은 읍기지명풍수(邑基地名風水)에 의한 것으로 금강산이 옥녀고, 미암은 그 옥녀의 눈썹이며, 멀리 병풍을 둘러치고 비파를 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옥천서 해남읍을 넘는 고개는 소의 무릎에 해당한다고 해서 '우슬치(牛膝峙)'라 한다. 해남읍을 지나 학동서 마산면 화내리로 넘는 고개를 '아침고개' 또는 '조령(朝嶺)'이라 한다. 조선 말엽 해남고을 현감들은 이곳 토족들 때문에 치정이 어려웠다. 연안이씨와 여흥민씨 두 성씨가 어찌나 세도를 부렸던지 해남 현감은 매일 아침 조령을 넘어 20리 밖에 살던 마산면 화내리 여흥민씨들을 찾아가 문안인사를 드리고 돌아와 정사를 보아야

51) <아침고개>, 『한국구비문학대계』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48-49쪽 ; <아침고개>, 김정호,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1987, 310-312쪽.

52) <우슬재(友膝峙)>, 『한국구비문학대계』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10-312쪽 ; <우슬재>, 김정호,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1987, 310쪽)

했을 정도였다. 이때문에 '아침고개'라고 부르게 됐다는 얘기가 남아 있다.

㉔ 연안이씨는 이조때 상신(相臣)을 8명, 대제학을 7명, 청백리를 4명, 문과 급제자를 2백50명이나 낸 10대 명문중의 하나였다. 여흥민씨 역시 상신 12명 대제학 3명, 문과급제자 2백44명을 냈을 뿐아니라 한말 씨족세도의 전형을 이룬 민비가문인데다 마산면을 중심으로 8백50여 가구가 집단을 이루고 살았으니 그 기세와 세도를 짐작할만 하다. 이때문에 해남현감들은 이 두 씨족 시중듣고 문안드리느라 정사를 제대로 못보았고 이들 비위에 거슬리면 곧 파직을 당했다. 이처럼 해남현감들은 국반(國班)을 자처하는 토호들 세도로 계속 파직을 당했기 때문에 현감이 되는 것을 꺼렸다. 1782년 김서구(金敘九)란 사람이 이곳 현감발령을 받았다. 그는 이곳에 도입하자 곧 고을 뒷산인 금강산에 올라 읍지형을 살펴보았다. 금강산을 주작(朱雀)으로 보고 사방을 살펴니 우슬치가 청용이고 조형이 백호요 금산과 읍 사이에 산이 하나 있는데(이 산이 호천리에 있는 葫山이다) 이는 분명 현무(玄武)라 명기(明基)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해남사람들이 거센것은 이 지형때문이라 판단하고 동헌에 돌아온 뒤 밤이면 관속들을 거느리고 매운 마늘같이 생긴 호산의 상봉을 삼척(尺) 삼촌(寸)씩 깎아내렸다. 코가 썩 소의 기를 죽이기 위해 소의 정갱이인 우슬재도 깎아내렸다. 그러나 그도 1년4개월만인 1783년 6월에 쫓겨나고 그 후임 김치승도 1년6개월만에 쫓겨났다. 읍터가 이처럼 좋다고는 하지만 서남쪽이 허해 서북풍이 세차게 읍을 때렸기 때문에 학동과 남외리에 방풍림을 조성, 오늘날도 노거수들이 숲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방뒤 이곳 해남에는 외지에서 들어와 살면 텃세를 받지않고 상권(商權)을 쥐고 관리들도 모함을 받은 일이 적어져 사람들은 김서구 현감이 지기를 빼고 지형을 바꿨기 때문이란 여론이 일어 10여년전 노인당이 중심이 되어 호산 산봉우리를 높이는 공사를 했으나 우슬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더 깎여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⁵³⁾

[자료4]-①·②·③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와 마산면 화내리에 각각 존재

53) <아침고개(朝嶺)와 우슬재(牛膝峙)>, 해남 군청 홈페이지,
http://co.haenam.or.kr/sm4/m4d/d_3.htm

하는 아침고개와 호산(葫山)·우슬재에 관한 <아침고개>·<우슬재>·<아침고개 (朝嶺)와 우슬재(牛膝峙)> 텍스트다. 이들 텍스트는 <우슬재>처럼 전남 산악인 호산(葫山)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서사 대상이 고개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산악전설>이 아니라 <고개전설>이다. 하지만 고개라는 거대 자연 지물이 인간의 교통로로 이용되는 산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개전설>은 광의의 <산악전설>에 포함되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과 마찬가지로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 등장하는 외지인 역시 중앙정부가 파견한 행정관리로 설정되어 있다. 지역의 자치적인 행정체제를 중앙집권적인 지배질서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갈등이 중앙정부가 파견한 행정관리와 지역 산악의 풍수 간의 대결로 매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차이점은 풍수단절 패턴으로만 존재하는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과 달리 풍수유지 패턴에 해당한다는 데 있다. 즉, 중앙행정부가 파견한 관리에 의해 전북 산악의 풍수가 단절되어 본래 전북 산악이 지녔던 신령성이 해체되는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과 달리,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는 중앙 행정관리에 의해 전남 산악의 풍수가 단절되는 사태 자체가 아예 벌어지지 않거나 혹은 비록 단절되었더라도 전남 산악의 기원적 신령성이 지역민에 의해 복구된다. 예컨대, [자료4]-①와 [자료4]-③-㉔는 중앙에서 전남으로 유입된 행정관리가 전남 산악의 풍수에 일체 손을 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비훼손 타입에 해당하고, [자료4]-②와 [자료4]-③-㉕는 중앙 행정관리에 의해 일시적으로 훼손된 전남 산악의 원래적 신령성이 복구되는 훼손 회복 타입에 해당한다.

전자의 비훼손 타입에서는 중앙 행정 파견 관리에 대하여 전남의 산악으로 매개되는 전남 지역인이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한다. 후자의 훼손 회복 타입에서는 전자의 비훼손 타입과 달리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처럼 중앙 행정 관리에 의한 지역 산악의 풍수단절이 시행되기는 하나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과 달리 풍수신령이 회복되어 [자료4]-②처럼 중앙 행정 관리를 축출하거나 지역민에 의해 복구되어 [자료4]-③-㉕처럼 자기 지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특히, [자료4]-③-㉕에서는 전남 지역민이 외부인에 대한 자기 지역민의 이익을 지켜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앙 행정 관리에 의해 일단 단절되었던 전남 산악의 풍수신령을 의도적으로 복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에 대한 저항성이 전남 산악의 풍수를 매개로 간접화 되어 있는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이나 전남 <산악전설> 풍수형의 [자료4]-①·② 보다 직접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어떤 경우이든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풍수를 매개로 중앙행정부에 대해 지역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점에서 일단 중앙 행정 관리에 의한 지역 산악의 풍수단혈이 시행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중앙 행정 관리를 매개로 한 중앙행정부에 대해 지역이 승리를 거두는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 보다 상대적으로 중앙 행정부 대항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전북 ‘산악전설’의 존재양상 및 특징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수성을 살펴봄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전북 미래유산 개발을 위한 문학적 기반을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전북 <산악전설>의 크게 신령형(神靈型)과 풍수형(風水型)의 두 하위유형으로 양분된다. 전북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산악 자체가 비밀상적인 움직임·힘·능력 지니고 있는 전자의 신령형은 다시 사람 같은 의인화를 통해 전북 산악의 신령성을 형상화 하는 인격(人格) 패턴과 본래 전북 산악이 지니고 있었던 신령성이 전북 산악과 직결된 제삼의 신격에 의해 전이되어 객체화 되어 있는 비인격(非人格) 패턴으로 분류된다. 인격형이든 비인격형이든 전북 <산악전설>의 신령형은 천지창조의 권능이 전북 산악에 내재해 있다는 애니미즘적 사고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며, 전북 산악의 신성 권능은 천지창조의 여신인 마고할미로 연계될 뿐 아니라 고려를 대체한 조선의 건국과 같은 국가질서 재배치의 역사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북 지역 산악의 애니미즘적 신령을 인문과학적 이치에 의해 일상적으로 풀이해보자 한 후자의 풍수형은 중앙 행정 관리를 축출하여 지역을 수호하던 전북 산악의 풍수가 중앙 행정 관리에 의해 최종적으로 단혈(斷穴) 되어 더 이상 신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풍수파혈(風水破穴) 패턴만이 존재한다.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비록 전북 산악 풍수가 최종적으로 파혈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체제 속에 전북 지역이 편입되고는 있으나, 전북 산악의 풍수가 전북 지역민을 수호한다는 애니미즘적 의식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 <산악전설>에서 확인되는 전북의 지역적 정체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영남 지역에 대한 상대적 우월이다. 이성계와 지리산신의 대결이 전북과 영남의 대결로 치환되는 전북 <산악전설>의 비인격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이성계와 지리산신을 매개로 한 전북과 영남의 대결 결과 국

가적 헤게모니는 물론 우주적 헤게모니가 영남에서 전북으로 이양되어 전북 소속이 되었다는 양상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전북 지역이 국가적 질서의 중심이자 더 나아가 우주적 질서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 주체성이다. 전북 <산악전설>의 유형별 분포도에서 신령형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전북 지역의 주산들에 대한 신격화를 매개로 자기 지역을 주체적인 수호하고자 하는 전북 지역의 자기 중심적 주체성이 확인되는데, 원래 영남 지역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결과 원래 영남에 속해 있었던 국가·천지 재배치의 신성 권능을 획득한 왕을 배출한 국가적·우주적 중심 지역이라는 자부심과도 연계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성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체제에 편입되는 대신 지역 주산의 애니미즘적 신성성을 인문과학적으로 일상화 한 풍수지리를 매개로 지역 자치적인 주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이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전남 산악의 풍수신령이 애초에 훼손되지 않거나 일단 훼손되었더라도 회복되어 중앙 행정 관리를 축출함으로써 자기 지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승리하는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 비해 풍수단절 결과 최종적으로 전북 지역이 중앙 행정부에 패배하고 있는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논문접수일: 2022. 03. 10. / 심사개시일: 2022. 03. 29. / 게재확정일: 2022. 04. 06.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 5-1.
『한국구비문학대계』 5-2.
『한국구비문학대계』 5-4.
『한국구비문학대계』 6-5.
『한국구비문학대계』 8-8.
해남 군청 홈페이지.
- 권도경, 2012, 「호남권 광포전설의 전승양상과 로컬리티」, 『인문학연구』 44호, 131-165쪽.
- 김월덕, 2015, 「전북지역 구비설화의 문화지형도」, 『실천민속학연구』 26권, 123-152쪽.
- 김정호, 1987,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310-312쪽.
- 이항녕, 1973, 「한국의 풍토와 사상」, 『한국사상총서』 IV, 한국사상연구회.
- 최래옥, 1981,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Abstract>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Mountain Legend in Jeollabuk-do Province and Regional Identity

Do Kyung Kwon *

To examine the regional specifici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xistenc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untain Legend' in Jeollabuk-do,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a literary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Jeonbuk's future heritage differentiated from other regions. It is largely divided into two sub-types: the spirit type and the geomancy type of the mountain legend in Jeollabuk-do. The spirit of the Jeonbuk "Mountain Legend" is based on the animistic thought that the power of creation is inherent in the Jeonbuk mountains and the divine power of Jeonbuk Mountain is not only linked to Magohalmi, the goddess of creation, but also appears to include the historical dimension of the relocation of national order, such as the founding of Joseon, which replaced Goryeo. On the other hand, in the geomancy type of the latter, is only blood transfusion patterns of the geomancy that the geomancy of the mountain in Jeollabuk-do that was defending the region by ousting central administrative officials are finally isolated by central administrative officials and no longer exerting divine power are present. Although the geomancy of the Jeonbuk mountain the geomancy of the Jeonbuk mountain was incorporated into the centralized system as it was finally destroyed, the geomancy type of Jeonbuk "Mountain Legend" is based on the animistic consciousness system that the geomancy of Jeonbuk Mountain protects the people of Jeollabuk-do Province.

As such, the regional identity of Jeollabuk-do, which is confirmed in Jeonbuk's "Mountain Legend," is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the relative superiority to the Yeongnam region. The second is self-centered subjectivity. The third is resistance to central government.

Key Words : Jeonbuk, mountain legend, Spirit type, geomancy type, Personality type, Impersonal type, Geomancy blood transfusion, identity

* Woosuk univ.

